



대우건설, 푸르지오에 '시 바리스타·맞춤 향기' 도입

대우건설이 푸르지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인공지능(AI) 바리스타 로봇과 맞춤형 향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 24일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 향기 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동아오츠카, 농업인에 온열질환 예방수칙 전파

동아오츠카가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동아오츠카는 지난 26일 경북 상주시 함창농협 유통센터에서 농업인 약 3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아오츠카



대한항공·아시아나, 미래세대 위한 직업 특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기부와 안전 체험 지원 등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교육기부 봉사단은 지난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양천도서관에서 초·중·고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 특강을 열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청소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대한항공



공영홈쇼핑, 수해·폭염 피해 중소기업 돕는다

공영홈쇼핑이 기획전을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회복을 돕는다. 지난 3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다시, 희망을 삽니다' 기획전은 이달 29일까지 4주간 모바일 앱과 웹에서 진행된다. 이번 기획전에서 총 20개 업체, 100개 이상의 상품을 소개한다.

/공영홈쇼핑



롯데마트, 발달장애 예술인 작품 담은 디퓨저

롯데마트가 발달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패키지에 적용한 '쿤달 향기마을 에디션 퍼fum 디퓨저'를 대형마트 단독으로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발달장애 예술인 소영 작가의 작품을 패키지 디자인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소영 작가는 발달장애와 신체적 제약 속에서 12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1분기부터 브랜드 '쿤달'과 협업하고 있다.

/롯데마트

현대차 '아반떼 N', 글로벌 모바일 게임 무대 달린다

'레이싱 마스터'와 마스터컵 개최 결승전 공식 경기 차량으로 사용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모바일 레이싱 게임 '레이싱 마스터(Racing Master)'와 협업체 이달 19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현대 N x 레이싱 마스터 컵' 오프라인 결승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게임 e스포츠 서울(GES)'의 e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온라인 예선에는 약 4000명이 참가했으며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홍콩·마카오·대만 등 4개 지역 대표 선수 8명이 결승에 진출했다.



모바일 레이싱 게임 RM 내 서울 도심 스테이지 남산 배경 이미지.

결승 경기에는 현대 아반떼 N이 공식 경기 차량으로 사용된다. 현대 N 차량이 글로벌 모바일 레이싱 게임 e

스포츠 대회의 공식 경기차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0달러와 게임 내 보상이 제

공된다.

현대차와 레이싱 마스터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GES 행사장에서 공동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현대차는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 자체 심레이싱 e스포츠 대회 '현대 N 버추얼 컵'의 개막전도 개최한다.

박준우현대차N메니지먼트실상무는 "이번 협업은 기존 콘솔·PC 중심의 심레이싱 활동을 모바일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게임 플랫폼을 통해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은보, 뉴욕서 'K-자본시장' 세일즈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뉴욕 글로벌 로드쇼 개최
시장 운영·인프라 혁신 경험 공유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사진)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뉴욕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하고, NY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뉴욕 일정에 앞서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시장 진출과 자금조달 경험, 현지 투자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산업 동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9월 3일에는 뉴욕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Korea Exchange Global Roadshow in New York'을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 약 20개 기관투자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한국거래소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로드쇼에서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노사발전재단, 병원 조직문화 개선 지원

교육영상 무료 배포

노사발전재단이 '건강하고 안전한 병원 만들기' 교육영상을 배포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약의 후속 조치다.

특히, 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바 있는 '병원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육영상은 병원 종사자와 관리자 등이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조직문화의 특성과 조직진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예방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방안 등이다.

이번 과정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병원 종사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한다. 영상은 이날부터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재단은 병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 30일 경남 거제시 양정동 일대에서 실시한 '거제지역 수해복구 임직원 봉사활동'에 참여한 KB국민은행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수해현장 찾아 복구 봉사

영남영업추진그룹 임직원 70여명
환경 정비하고 생필품 전달·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30일 거제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영남영업추진그룹 임직원 70여 명은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거제시 양정동 일대를 찾아 유입된 토사와 각종 잔해물을 제거하고 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 물티슈 2000여 개 등 생필품도 전달하며 수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제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활동이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5억원을 전달했으며, 주요 계열사들도 금융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함께 피해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과 KB국민카드는 보험료 납입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피해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진, 코리아컵 출전 명마 안전 수송

특수물류 역량 강화

한진이 세계 최정상급 명마들을 늘길로 안전하게 나르는 '특수수송작전'에 나섰다.

한진은 오는 6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에서 열리는 한국마사회 주최 국내 최고 권위의 경마 대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참가해의 우수경주마들의 국제 왕복 수송을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진은 일본, 홍콩 등 해외 각지에서 출발한 경주마들을 수송 전용 특수 장비인 '호스 스톨(Horse Stall)'을 활용해 안전하게 항공으로 수송한다. 스톨 내부에는 배설물 흡수제와 톱밥, 건초를 깔아 경주마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말 1마리당 2명의 전담 관리인인 '그룸(Groom)'이 동승해 밀착 케

어를 제공한다.

지난 25일 심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한 경주마들은 검역 전 땅을 밟지 않도록 높이 2m 이상의 전용 브리지인 '하마대'와 특수 매트를 거쳐 수송 차량으로 안전하게 옮겨졌다. 이는 경주마들이 검역 전 현지 공항 바닥이나 토양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예방 조치다.

경주마를 육상으로 수송하는 차량은 무전동 차량으로, 경주마를 안정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고가의 전문 장비다. 해당 차량에 탑승한 경주마들은 급격한 출발·제동을 금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기반 한국마사회 회의 수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천 렛츠런파크 마방까지 안전하게 이동한다.

/김승호 기자 bada@